현실적인 죄의 상태란?
(롬 6:3~7)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현실적인 죄의 상태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곧바로 우리에게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가리키십니다. 그러면 태초에 아담이 지은 그 죄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태로 경험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 인해 이 세상으로 들어온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그 죄의 상태가 현실적으로 내게는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도대체 주님께서 이룩하신 복음사건이 내게 어떠한 영향을 지금 현재 줄 수 있겠는가를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곧바로 선악과 사건을 찾아들어가서 그 속에서 뒤지고 헤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을 에둘러 가는 것이 좋다 하는 확신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을 먼저 보고 그리고 죄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선악과의 사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20세기 교부라 불리는 칼 바르트도 그렇고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어떻게 알려지느냐, 그것은 십자가의 구원사건을 통해서만 분명히 알려질 수 있다고 믿고 제 자신도 그저 뼛속에서부터 그렇게 확신이 듭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저희 집에 김치냉장고가 있고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김치냉장고가 먼저 시작해

서 일주일 간격으로 연달아 고장이 났어요. 사실은 고장의 징후는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도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전에는 안 그랬는데 불빛이 반짝거린다든지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진작 AS 센터에 연락해서 고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놓아 둔 채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는 중에 자꾸 '아, 어느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겠구나,' 하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냉장고의 고장,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냉장고의 죄의 상태, 고장 난 게 죄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죄의 상태를 아무리 짐작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AS 센터 직원이 와서 고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어디가 어떻게 고장 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냉장고도 또 고장이 났어요. 또 마찬가지로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다 들어내고 속에 있는 부품을 뜯어내면서 고치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냉장고와 김치냉장고의 구원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디가 고장 났었는지를 알게 되겠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읽으면서 그러면 과연 죄로부터의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봤더니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얘기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요약하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이 구원 받은 상태입니다. 이 구원 받은 상태가 어떻게 해서 주어집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함께 장사된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면 그러면 구원이 주어집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의미를 좀 더 살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포인트이거든요. 5절에 보면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죽음의 포인트에서 주님과 연합하면 장사되고 부활하는 그 포인트에서 연합되는 것은 그 후속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몸이 죽는 것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야 구원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어' 여기서 '죄의'라는 것은 죄에 물든 몸인데 '죄에 물든'이라는 수식어를 빼버리면 도대체 구원사건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식어 '죄에 물든'이라는 말을 빼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근데 그 몸은 죄에 물든 몸이에요. 여하튼 몸이 죽어야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냉장고가 고장 났듯이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을 고치는 장면을 보니까 몸을 죽이더라 이겁니다. 몸을 죽여서 그 다음에 계속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다시 부활한

상태에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는 몸을 따라가는 상태가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우리 인격을 몸에서 떼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격과 마음이 자꾸 몸에 속해서,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쉽게 말하면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육신의 오감관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이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 느껴지는데 그 오감관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 내 마음이 반응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앞으로 외제차가 지나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나도 저런 차를 가져야지' 이게 바로 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나도 저렇게 명품으로 온 몸을 치장해야지' 라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면서 마음이 거기에 따라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의 행동의 모든 동기가 몸의 오감관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이걸 다시 말하면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지요. 누가 상 타는 것을 보거나 잘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픕니다. 그런 걸 보면 '다음에는 내가 상 타야지!' 바로 마음의 동기가 여기서 유발되는 거예요. 눈으로 몸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세계로부터 내 마음에 행동의 동기가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연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몸을 떼 내려고 주님의 십자가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내 모든 마음의 감정의 움직임과 행동의 동기가 다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쩌다가 육신을 따라 사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이제 선악과의 사건으로 넘어가 봅니다.
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이 몸의 종노릇 하게 되었습니까?
왜 몸이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왜 몸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왜 몸의 오감관으로 접촉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바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를 범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까지 사망이 왕 노릇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사건을 우리가 이 정도 알고 나서 선악과사건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죄악의 상태를 고칠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나와 함께 죽자'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죽어서 이제 다시 태어날 때는 내 마음과 인격이 몸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과 내 인격이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으면서 몸에 종속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몸에 종속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사탄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마귀가 한 말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이 유혹이라면 유혹이겠지요.

자,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선과 악을 판단하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일까요?
선악판단이라는 것은 통치권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판단의 권리가 있고 선악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재판장이라는 말이고 경영자라는 얘기고 내가 통치자요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자의 주인 주(主)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왕(王)자 위에 점이 찍혀있어서 왕이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게 아니랍니다.
주(主)에서 왕(王)자는 왕이 아닌 등잔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의 꼭지는 등잔대 위에 피어오르는 불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전깃불 하나 없는 깜깜하던 세상에서 등잔위의 심지에 불을 붙이면 방안이 환하게 됩니다. 그 등잔불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빛을 내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빛입니다. 판단력이라는 것이 빛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판단력의 빛을 발하는 자가 바로 주인이라는 것이고 통치자라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내게 주어지는 상황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고 통치자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통치력은 생겼고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주어졌습니다. 자기가 획득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 모반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통치할 영역이 없잖아요, 통치할 대상이 없습니다.
통치권을 발휘하고 싶은데 판단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판단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에덴은 전부 하나님의 통치영역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영역입니다.

여기서 태초의 도둑질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통치권을 쥐고 나서 통치할 수 있는 대상을 찾으면서 판단권을 쥐고 나서 판단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찾으면서 몸을 택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는 등을 지고 몸을 택하게 된 것이에요. 몸을 택하면서 몸이 오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접하게 돼요.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면서 이 세상을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이 마음에 느낌을 주고 전달을 합니다.

이 느낌에 따라 이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을 결정하고 뜻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몸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것, 외제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좋다, 갖고 싶다' 판단을 합니다. '저런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따라 '나도 저런 차를 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만 바로 로마서 6장에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를 봤더니 몸을 마음에서 자꾸 떼 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몸에 종속되어 있고 몸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를 자꾸 끊어내려고 하더라 이겁니다. 구원의 현장을 보니까…
그걸 봤더니 선악과가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된 뒤에 왜 몸을 택했느냐, 자기가 왕 노릇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골목대장이 골목대장 노릇 하듯이 '나도 하나님과 같이 -왜 하나님 당신만 왕 노릇 합니까? - 나도 왕 노릇 할 수 있습니다'라고 몸을 택해서 몸이 접하는 이 세상에서 판단해 가면서 왕 노릇 해 가면서 몸을 움직이고 경영해서 내 삶을 올바르게 자기 판단에 좋게 향상되도록 운영해 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몸을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몸을 사랑한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몸에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색시가 너무 너무 예쁩니다. 외출할 때는 색시의 핸드백을 들어주고 그저 꼬리처럼 매달려서 종종거리고 색시가 화장실을 가도 따라가고 부엌에서 일을 해도 따라가고 하는 것을 시어머니가 와서 보니, 아들은 색시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색시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에게 '저 머저리 자식'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몸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몸에 종노릇 하고 매여 있게 된 것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 하나님께 맞먹으려고, 똑같은 통치자의 형태를 갖추고 하나님께 맞먹은 그 죄가 - 결국 몸에 종노릇 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애매한 몸도 -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것을- 죄악의 몸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멋진 도자기를 도둑질하면 그 도자기가 장물이 되어버리듯이, 멀쩡한 도자기가 장물이 되어서 뒷골목으로 돌아다니다가 헐값이 되어 팔려나가는 것처럼, 아담이 통치권자가 돼서 통치영역을 찾기 위해 몸을 도둑질하는 바람에 멀쩡한 몸이 죄악의 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의 몸으로 떼어 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선악과가 있었을까요?
선악과가 있었던 이유는 선악의 판단하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말라, 왜 그래요? 우리 삶의 하나님을 위한 TO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영업부에 TO가 두 개 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

습니까? 우리 삶의 하나님을 위한 TO가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선악을 판단하시는 왕 되시고 다스리심의 주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그 부분에서 연합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도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분명히 선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오직 선악판단은 아버지께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내어드리고 인정함을 통해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과 도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할 때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덴동산이라고 한 것입니다. 과일이 많아서 에덴동산이 아니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선악을 유보해요,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 그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판단하지 않는 바로 그 부분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판단하시는 하나님과…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이제 가능해 집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다스리는 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임금이 되고, 주권자가 되어서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을 따로 훔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질문이…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위임을 해 주시지 않았느냐? 거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미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위임을 주셨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새삼스럽게 자기가 다스릴 영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해 주셨는데 이 위임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타락 이전에 주어진 위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스리는 자가 선악을 판단할 수 없을 때, 옳다 그르다를 재판할 수 없을 때, 무슨 수로 다스린다는 것입니까? 판단할 권리가 없는데 판단할 주권이 없는데 다스린다는 것이 실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도 이상하신 분이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너희가 듣고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너희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판단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삶 안에 들어가서 내가 판단하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 놓고 왜 다스리라고 하셨습니까?
왜 정복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은 내용적으로는 '내가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나의 다스림이 너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선악과와 함께 생각한다면…
우린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문화적 명령이라고 이해해서 이 우주의 자원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유하고 만끽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와 연관을 지어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와 연결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도대체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결국 하나님이 주권자로 남아 있으시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 다스림을 너를 통해 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다른 뜻이 없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내가 선악을 판단해야 할 자리를 비움으로써 내 속의 빈자리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려나가실 때에 '너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는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다스리고 너를 통해서 주권을 발휘할 것이다.' 이 얘기였다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을까요? 있지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약관 2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다고 친구를 불러 여흥을 즐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짝 졸았습니다.
그리고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뭘 해주면 좋으랴' 하실 때
솔로몬은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선악판단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선악판단을 못하겠습니까? 이십 세면 이십 세 나름의 선악판단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선악판단을 못하겠다는 상황까지 도달하는데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같이 타 죽는 겁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 것을 일천 번이나 했어요. 무엇을 죽였을까요?
자기의 판단을 죽인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일천 개의 생각을 죽이고 일천 개의 판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 내 선악의 판단의 기준도 내 생각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일천번제를 통해 회복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에덴의 상태로 돌아갔으니까 내가 너에게 선악판단을 하는 주권자로서 위임할 것이고 분명히 왕은 솔로몬이지만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그 나라를 통치하시게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문화적 위임, 문화적 명령의 참내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토해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타락합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선악과를 토해 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선악판단의 주체로서 임하시고 뿐만 아니라 에덴에서의 삶처럼 모든 과실이 풍부한 상태로 부귀영화를 함께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선악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선악의 판단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선악의 판단의 주체로 오셔서 다스리시면서 원치도 않은 모든 것을 이 세상 삶에서 다 이루어주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선악판단의 주체가 돼서 몸을 선악판단으로 다스릴 영역으로 택하고 몸이 접하게 되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과 인격이 몸을 움직여 가면서 내 삶을 경영하는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옳고 그름을 판단한 뒤에 선악을 판단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전히 내가 죄의 상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생활에서 무슨 믿음과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참 힘든 것은 선악판단을 하는 상태가 그냥 자동적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판단을 하는 주권자로서 우리 몸이 놓여 져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몸을 움직여 가면서 우리 삶을 멋지게 좋게 개발해 가려고 발달시키려고 하는 이 주권자의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사랑, 자식사랑, 부부사랑, 나라사랑, 애국애족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만 다 추악하고 더럽기 그지없는 도둑질을 통해 가능하게 된 하나님을 배반함을 통해 가능하게 된 죄악의 상태라는 겁니다.

내 몸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나라와 민족과 내 사업과 이 세상 전체는 원래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옳고 그름,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시면서 이끌어 갔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주권자가 돼서 몸을 도둑질하면서 내가 통치하게 되면서 죄악의 몸이 돼버리고 그 몸에 종속되어서 일평생 두려움에 떨면서 몸을 통하여 접하게 된 이 세상에 시시각각 마음이 좌지우지되면서 거기에 얽매여서 벌벌 떨며 노심초사하며 살고 있는 이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이 상태가 하나도 변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몸이 접하는 상황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죄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 중의 문제 아닙니까?

죄의 현실적인 상태가 뭡니까?
죄를 짓는 순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에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창세기에는 나타나지 않은 죄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발전되었습니까?
쉽게 말해, 내 몸이 접하는 이 세상에 대해 내 마음이 느끼는 대로 매여서 행동하게 되고 뜻하게 되고 계획하게 되고 소원하게 된 것, 이 상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죄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악의 상태 - 이제까지 지은 죄가 어떻게 치유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러한 죄 사함을 통하여 어떠한 삶이 주어져야 되는가 라는 것을 내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것이고 그리고 구원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거듭난다고 하는 차원에서 다시 조명하면서 진정으로 제자 됨의 마음, 제자 됨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죄악의 상태에 빠져있는 마음이에요. 경영자가 되어서 나를 완성하려고 하는 마음, 이 제자 됨의 마음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넘어가는 일이 이번 주간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함께 사순절 중의 한 주간을 보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적인 죄의 상태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내가 그것을 죄라고 인식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몸에 익숙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죄의 상태를 분명히 깨달아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 또한 분명히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귀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